보건복지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1.(수) 포럼 시작(14:00) 이후 | 배포 2026. 11. 11.(수)

정부·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·전문가 등 모여 온라인 유통 자살유발정보 차단 방안 논의

- 보건복지부·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, 「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」 개최 -
-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AI 기반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성화 논의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1월 11일(수) 14시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「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」을 개최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「자살예방법」)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,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

개정 「자살예방법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다. 또한,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수행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,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살유발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,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(AI)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, 11월 중 구동을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

역량을 한층 **강화**할 계획이다. **AI 시스템**은 방대한 온라인 정보 중 **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**하고 이 중 **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**하는 데 활용된다. 이를 통해 **모니터링 담당자**는 **자살위험이 높은 게시물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확인**하여 필요한 경우 **구조신고 등 후속 조치**를 할 수 있다.

이번 포럼에서는 **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**가 '**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, 나아갈 방향**'을 발표하고, 이어지는 토론은 **백종우 자살예방협회 회장(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)**이 좌장을 맡아 **분야별 전문가**와 **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.**

▲인터넷 자율정책기구 김성덕 팀장과 **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**이 **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**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관련 **애로사항**과 **향후 법 개정 방안 등**을 제시하고, **▲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**이 **온라인상 불법정보 관리 실무 경험**을 공유한다. **▲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만성 경감**은 **자살유발정보 수사 현황**을 설명하고 **기관 간 향후 협력 방안**을 제언하며. **▲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**은 **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**의 **자살유발요인 관리 방향**과 **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관리의 중요성**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**협조를 당부한다.**

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**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,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**를 더욱 공고히 하고, **온라인 자살유발정보**의 **신속한 발견과 조치**를 통해 **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**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.

이형훈 제2차관은 "**자살유발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**는 **소중한 생명을 위협**하는 **명백한 범죄**이며,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은 이제 일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, **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**"라며, "이번 **법 개정**과 **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**을 계기로 **민·관의 역**

량을 결집하여 **자살유발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**하고, **온라인 공간에도 생명존중문화가 확산**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「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」 개요
2. 「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」 포스터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	책임자	자살예방정책과장 박재우 (044-202-3890)
		담당자	사무관 주정민 (044-202-3899)
			주무관 김혜진 (044-202-3898)

붙임1 「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」 개요

□ 목적

○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「자살예방법」 제·개정 조항 취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·정부·재단의 역할에 대해 대국민 홍보

○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위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·관의 협력 방안 논의

□ 추진개요

○ (행사명)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

○ (주제)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대응 방향 모색

○ (일시) 2026.11.11.(수) 14:00~16:00

○ (장소) 보코서울강남 1층 미팅룸(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4)

○ (참석) 국회의원, 정부부처, 유관기관, 자살예방 및 정책 전문가,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50명 내외

○ (주최·주관) 보건복지부·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
○ (주요내용)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사업 추진현황, 개정법 안내, 자살유발정보 대응 필요성 발표 및 이해관계자 토론

□ 전체 일정표

시간		구분	발표·진행	비고
13:30~14:00	30′	사전등록 및 착석	행사 진행 요원	
14:00~14:05	5′	개회·행사 안내	사회자	
14:05~14:25	20′	개회사	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	영상
		축사	서미화 의원, 한지아 의원	영상
		환영사	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	
14:25~14:35	10′	모니터링사업 추진현황 개정법 시행 안내	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	
14:35~14:55	20′	발표-'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, 나아갈 방향'	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	
14:55~15:05	10′	휴식 및 토론석 정비	사회자	
15:05~15:35	30′	패널토론	좌장 및 토론자	
15:35~15:50	15′	질의응답	좌장 및 토론자	
15:50~16:00	10′	전체 촬영 · 폐회	사회자	

□ 패널토론

구분	소속 및 직위
좌장	한국자살예방협회 **백종우** 회장
토론자 1	인터넷자율정책기구 **김성덕** 팀장
토론자 2	한국인터넷기업협회 **김영규** 실장
토론자 3	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**박성혜** 팀장
토론자 4	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**이만성** 경감
토론자 5	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**박재우** 과장

붙임2 「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」 포스터

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

| 일시 2026년 11월 11일(수) 14:00~16:00

| 장소 보코서울강남 1층 미팅룸

|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해정보대응팀
02-3706-0535~6

사전 참수 바로가기

유튜브 생중계 LIVE

| 프로그램

시 간	구 분	발 표 · 진 행
13:30~14:00	사전등록 및 착석	
14:00~14:05	개회·행사 안내	사회자
14:05~14:25	개회사	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
	축 사	국회의원
	환영사	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
14:25~14:35	모니터링사업 추진현황 개정법 시행 안내	주정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
14:35~14:55	| 발 표 | '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, 나아갈 방향'	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
14:55~15:05	휴 식	사회자
15:05~15:35	| 패널토론 | 좌장 :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토론 : 김성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박성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이만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감 박재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	
15:35~15:50	질의응답	
15:50~16:00	전체 촬영 · 폐회	사회자

* 세부 일정 및 참석자는 세미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
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